

광주시-인근 5개 시·군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행

(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군)

관광·상생발전 협력 11개 사업 본궤도

지역 관광 브랜드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

광주시가 인근 전남지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광주시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와 인접한 5개 시·군이 관광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시청에서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함평군 등 5개 시·군과 관광 상생 발전을 위해 관광업무 관련 과장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

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광주-서울 간 KTX 완전 개통 등으로 변화될 관광 여건과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남도 관광산업 발전과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지리적 여건과 생활환경이 동일한 광주와 인접 시·군들은 지역의 공동발전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관광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광역 연계 순환버스투어 운영 등 11개 제안 사업을 논의·추진하기로 하고,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제안 사업은 광주시의 경우 광주·인접 시군 연계 광역시티투어버스 운영, 문화전당 개관 등 국제행사 공동홍보, 중국관광객 대상 남도관광루트 개발, 남도관광홍보물 공동제작, 중국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 5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나주시는 '2천년의 시간여행' 나주관광 활성화, 담양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계 관광상품 개발, 화순군은 음악가 정윤성 관련사업과 주자묘 조성사업 공동협력, 함평군은 중국관광객 대상 관광 상품 개발, 장성군은 청령문화 교육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각각 제안했다.

광주시와 5개 시·군은 역사와 문화, 생활·경제권을

을 같이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광주의 도심관광자원과 시·군의 천혜 자연관광자원을 연계해 공동 관광 상생발전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천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2015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으로 관광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광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 인접 기초지자체와 관광산업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광주가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남도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 도시재생사업

위원회 구성... 본격화

내년 사업공모 7개 시군 참여

최대한 22개 시·군의 시가지 재생의 밑그림을 그릴 전남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이달 구성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7일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대학, 전남발전연구원 등 16개 기관에서 추천한 25~30명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활성화계획 등을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우선 2014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목포시와 순천시의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재생 계획을 심의한다.

목포시와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160억원, 시비 240억원 등 40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통한 예술인 마을 조성, 테마 거리 및 골목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내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도내 7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15년 도시재생공모사업 공모에 대비해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인 시군은 여수, 나주, 광양, 구례, 보성, 함평, 완도 등으로, 이 가운데 여수, 광양, 보성, 함평은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함께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위광환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그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사업 계획에 맞춰 내년에도 2~3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 취약지역 집중 개조사업은 전국을 중추도시생울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해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별로 3년간 국비 최대 70억원을 지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페라하우스 앞 산타 달리기 7일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에서 매년 개최되는 산타 달리기 대회에 참석한 수 천명의 산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사초반 호봉제·중반 성과급... 퇴직전엔 임금피크제

복합 임금제 도입 검토

공사·대기업 우선 적용

입사 초반에 호봉제, 중반부터는 직무·성과급제, 후반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기간제 근로자의 쪼개기 계약(반복 갱신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되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테면 숙련도가 올라가는 입사 후 10년까지는 호봉제를, 성과 등이 본격적으로 차별화되는 11~20년차는 성과·직무급을, 퇴직이 가까워지는 21년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복합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노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질병, 직무 능력 등 근로자 일신상 사유에 따른 일반해고와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은 정규직의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노력을 하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합리적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내년 상반기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요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일반해고 요건의 명확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긴급한 경영 사유에 따르는 정리해고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종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 한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내년 3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민간주도로 바꾼다

18일 재단법인 창립총회

명랑대첩 축제와 함께 전남의 2대 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도 앞으로는 재단법인이 축제를 주최하게 된다.

전남도는 7일 "남도음식의 산업화 및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를 기존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창립총회에는 이낙연 전남지사, 최형식 담양군수,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보해양조 회장 등 15명이 참석해 법인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 제정,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5000만원, 운영재산은 8억원이다.

전남도는 이날 내로 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명랑대첩 축제를 재단법인이 주최한 이후 축제 규모도 커지고, 프로그램도 알차졌다"며 "앞으로 기업들의 후원이나 협찬도 가능해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라도 출신 불가' 채용 공고

인권위 남양공업 조사 촉구

호남미래포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사장 한갑수·상임운영위원 김성호)은 "최근 경기도 안산시 반월 공단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남양공업이 채용공고에 '전라도 출신 채용불가'를 명시해 큰 사회적 파문과 물의를 빚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엄정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호남미래포럼은 보도자료에 "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기업의 직원채용 공고에서 외국인인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내용이 확인돼 온 국민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다"며 "인류 보편가치인 인권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고용촉진기본법 등 여러 실정법의 명문 규정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호남미래포럼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갈등을 촉발, 조장하는 망국적 행태의 재현이어서 즉각적이고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에 따라 시정, 근절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호남미래포럼 관계자들은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시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범시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062) 372-7585 (010) 3601-7701 시·군 취급점 선착순 모집

2015년 신입생 모집
상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과

홈페이지 www.suibe.co.kr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28일 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30시간, 총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www.golochina.co.kr
233-9582 (중) 구오달리

GoChina 중국 전문 인력 양성
입학상담문의